

85년, 간흡충 치료사업 (下)



이 준 상

「간흡충이 많이 감염되는 강이 어디입니까?」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물론 낙동강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간흡충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의 우리나라의 강 모두가 좀더 말하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하천, 저수지까지 모두다 간흡충에 오염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통은 전국방방곡곡을 하루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한사람의 간흡충환자가 돌아다니는 곳은 모두 간흡충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공해가 생기는 것과같이 교통이 발달하다보니 간흡충도 그만큼 빨리 전파되는 것 같다.

특히 주의할점은 과거 바다물이던 곳에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만든곳이 서해안에는 많은데 이곳 주민들은 제방쌓기 전과같이 물고기를 잡아 생식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것이다.

민물고기는 바닷고기에 비하여 생으로 먹었을때 감칠맛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모든 민물고기에 간흡충피낭유충이 전연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간흡충을 퇴치하여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전연 생선회를 먹지않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낚시질하면서 민물고기를 다루다가 식빵이나 과자등을 먹는다면, 담배를 손가락사이에 끼고 깊게 빨면서 손바닥이 입술에 닿을때에 손에 묻어있는 피낭유충이 입속으로 들어감도 생각할만 하다.

가정에서 민물생선회를 칠때 아이들이



나 주부는 생선회를 안 먹어도 감염되는 것은 생선회를 칠때 사용한 도마나 칼에 묻어 있던 간흡충피낭유충은 오래동안 남아 있다가 다른요리를 할때 그음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집안식구는 생선회를 먹지 않고도 간흡충에 감염되기 쉽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 생선회를 좋아서 먹은 사람 자신은 자기가 좋아서 감염되었다가 보나 다른 집안식구는 왜 간흡충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나. 민물고기중 간흡충피낭유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물고기는 참붕어, 납지리, 긴물개, 모래무지, 참중고기, 백조어, 버들매치, 큰납지리 등을 들수 있는데, 은어, 황어, 붕어, 참붕어 등에서는 요꼬가와흡충의 피낭유충이 있어 이 또한 우리몸을 괴롭히고 있다. 요꼬가와흡충은 일명 장흡충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충은 우리의 소장내 기생하면서 설사를 유발시킨다.

내년에는 100만명을 검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보다 더 대대적인 간흡충치료사업을 전개하여 88년 올림픽까지는 우리나라를 간흡충이 없는 나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정말 올림픽을 치루는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국민이 다 함께 손을 모아 협조하여야 하지 만일 다른나라 선수및 임원이 한국에는 간흡충이 우굴우굴하다는 핑계를 삼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국제관광 또한 같다. 우리도 어느나라 어느곳에 풍토병이 많다면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조상으로부터 좋은 산천, 좋은 기후를 물려받았다고 자부하여

외국인에게 선전하는데 그들이 풍토병을 핑계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크겠는가.

금년 간흡충치료사업을 실시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지방은 대단한 열성으로 주민과 군 및 보건소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보다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무관심한 지역도 있었다.

한사람의 무관심은 그지역 주민·모두 국가의 큰혜택을 못 받음은 물론이고, 국가가 88올림픽까지 모든 간흡충을 퇴치하려는 사업에도 큰지장을 가져옴은 당연하다.

내년에는 정부도 알맞은 시기를 정하여 치료사업을 실시함이 요구된다. 환자의 대부분이 농촌이므로 되도록이면 농한기를 택하여 치료사업을 실시하여야된다.

농번기에 일은 많은데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니 많은 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을 보았다.

금년 봄 경기도 어느지역을 선택하여 간흡충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극소수 물지각한 교사가 있어 성과를 제대로 못 올린 적이 있었다. 그지역 주민은 그지역 학생을 통해 자기집 식구의 대변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극소수 교사가 도위위원회에 항의를 하였더니 그러면 학생본인만 검사하라는 공문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였다. 그지역은 간흡충이 만연된 지역이며, 우리연구팀은 주민에 대한 검사료를 받는 입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불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물론 학생을

지도하는것 이외 학교사무가 많음은 사실이나 학생 각자의 가족 비닐속에 부모님이나 형제의 대변을 같이 가져오이 뭐 그리 나쁜가. 법이나 원칙은 물론없다. 그러나 부모님이 있고, 학생이 있으며 자기가 있는 지역을 조금더 사랑한다면 그런 몰지각한 불평은 있을수 없지 않으나 생각된다.

간흡충 퇴치사업은 온국민이 협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킴은 국가적차원이니 공무원을 위시하여 전국민이 설령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 참여하여야 된다. 간흡충에 감염된 학생에 대해 너무 겁을 주어 부모가 놀래서 고가의 약을 복용시킴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부학생은 우리치료팀이 도착하였더니 벌써 시중약국에서 프라지관텔을 사서 복용하였다. 빨리치료함도 바람직하나 모든학생의 기생충치료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니 보건소에 배정된 간흡충 치료제를 사용함이 원칙이다. 또 어떤사람도 시중에서 고가로 약을 사서 복용하였는데 일단 복용이 끝난사람은 다시 복용할 필요가 없다. 프라지관텔이 간흡충 이외에 폐흡충, 촌충, 요꼬가와흡충 및 너낭미충에도 약효가 있음은 사실이나 영양제는 아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약이라도 어떤 질환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부득이 치료를 필요 할 때에만 약을 쓰는 것이다.

근래에 제약회사대리점에서 간흡충피내 반응만을 실시하고, 「당신은 간흡충에 걸려 있는데 우리회사제품 ×××가 잘 치료됩니다」라고 하면서 고가의 치료제를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설령 피내반응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간흡충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대변검사를 실시하여 간흡충란을 확인한 후 치료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는 피내반응검사만 실시하고 고가의 치료제를 강매함은 기생충만도 못한 상인들이 자기몫이 아니니깐 국민을 우롱하여 이득을 보려는 처사이니 현혹되지 말도록 각성을 요한다.

현재까지 간흡충치료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내년에도 년차적으로 치료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외지역 주민들은 보건소에 가서서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충란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배정된 치료약으로 무료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대변검사에 신경을 쓰셔서 자기몫을 보살피야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을 몰아 낼 수 있다. 완전히 간흡충을 몰아 내면 그때가서는 민물고기회를 즐길수 있다.

1986년도 제 4 차 간흡충치료사업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빌면서 끝을 맺는다. <끝>

(필자=고려의대 교수·의박)

《이달의 기생충 표어》

날로먹는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감염된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